

김열규의 수필론 연구

이 정 인*

차 례

- | | |
|-----------|------------|
| 1. 서론 | 4. 수필의 지향점 |
| 2. 수필의 글감 | 5. 결론 |
| 3. 수필의 언어 | |

국문초록

국문학자·한국학자 김열규는 한국 수필의 한 맥을 잇는 수필가이기도 하다. 편협한 장르의식으로 소외당한 수필을 문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왕성한 작품 활동과 수필 이론을 개진하였다. 이 글에서는 김열규의 수필론을 수필의 글감, 수필 언어, 수필의 지향점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수필을 소재의 문학이라고 한다. 작가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수필의 소재는 구체적 생활세계, 실존의 양태인 이 일상에 있다. 김열규는 수필의 소재가 지닌 일상성을 기꺼이 인정하되 그것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수필가의 몫임을 상기시킨다. 수필의 소재는 사실 그대로의 낱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가치와 의미를 캐물으며 작가의 해석과

* 안동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강사

의미부여라는 문학적 변용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재를 심미적 관점에서 형상화하여 주제를 구현하는 데는 언어라는 통로를 거쳐야 한다. 수필 언어는 작가가 자신의 일상적 체험을 자기만의 언어로 재구성하며 삶과 세계를 의미화한 문학적 소산이다. 김열규가 추구하는 수필 언어는 피상적 생각 나열이나 상투적 일상어가 아닌 체험이 내재화되면서 자기 안에서 부화한 언어다. 오롯이 작가 자신의 감각에서 발현되는 ‘체험의 언어’를 말한다. 그러므로 김열규에게 수필 언어는 곧 체험이다.

김열규가 제시한 수필의 글감과 언어에 대한 이론은 궁극적으로 자기 고백의 글쓰기인 수필의 본령을 보다 진정성 있게 이행하는 데 요구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를 위해 자기응시와 자기탐색이라는 ‘수행(修行)’의 뜻을 수필隨筆의 ‘수隨’에 부친다. 결국 그의 수필의 지향점은 일상의 소재가 작가만의 체험의 언어로 부화되어 구심(求心)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김열규 수필론의 저변에는 ‘일상성’이 깔려있다. 일상의 문학, 생활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성은 마치 수필의 문학성을 방해하는 태생적 한계처럼 여겨져 왔다. 그는 수필문학의 딜레마를 부인하는 데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난제를 끌어안고 극복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수필문학이 거둬나가는 길임을 피력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김열규 수필론의 의의라 해도 좋을 것이다.

주제어 : 김열규, 수필(론), 수필의 글감, 수필 언어, 일상성, 고백의 글쓰기

1. 서론

김열규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수식어에는 한국학의 거장, 민속학자,

국문학자가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수필가 김열규’로서의 활동 이력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평생동안 그는 한국학·국문학 천착과 함께 수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였다. 1979년 『수필문학』 ‘수필문학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한 이력은 김열규가 수필을 여기(餘技)가 아닌 독자적 한 영역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수상소감에서 그는 수필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 “학문에 치우친 문학으로 인해 문학(예술)에 대한 향수가 절실”¹⁾해진 데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신동욱은 김열규의 서정적 산문들은 그가 학문적으로 모두 처리할 수 없는 삶의 내용을 자유스러운 산문의 형식을 빌려 쓰게 된 산문이라고 한 바 있다.²⁾

수필은 1930년대 근대 산문의 한 양식으로 대두되어 ‘수필’로 명칭이 통일되며 문학의 한 장르로 편입되었다.³⁾ 하지만 수필은 1950, 60년대를 지나도록 여전히 시인, 소설가들의 여기(餘技)의 영역이기도 했다. 1970년대에 와서야 수필 전문지가 하나 둘 생기면서 수필가 1세대들이 등장⁴⁾하였고 수필은 비로소 ‘수필가’의 독자적 문학영역으로 인식되기 시

- 1) 김열규, 「김열규-수필문학 신인상 수상 대담」, 『수필문학』, 수필문학사, 1979, 54쪽.
- 2) 신동욱, 「김열규의 수필세계-삶에의 詩的 洞察과 그 아름다움의 抒情」, 『수필문학』, 수필문학사, 1979, 44쪽.
- 3) 1920년대에 문학 동인지와 각종 잡지들에서 기행·감상(문)·수상·상화·소품·일기 등의 모호한 이름으로 일컬어지던 주변적이고 사소한 글쓰기들이 1930년 후반부터 1930년대에 비평적·이론적 논의를 통과하면서 수필이라는 ‘문학’으로 수렴되어 불리기 시작했다(김현주, 『한국 근대 산문의 계보학』, 소명출판사, 2004, 171쪽).
- 4) 1970년대 이전 수필문학에 대한 문단 및 독자들의 시각은 결코 좋은 것이 못되었다. 수필은 마치 아무나 쓸 수 있는 장르처럼 인식되어 ‘서자문학’ 취급을 당해왔다. 그러나 1971년도 조경희, 서정범 등이 한국수필가협회를 창립, 수필중흥을 꾀하며 1973년에 기관지 『한국수필』(초기에는 『수필문예』)을 발행하고, 1972년에는 월간 『수필문학』의 창간으로 수필문학의 인식을 높여갔다. 이 시기 양대 수필지에서 서정범, 김규런, 김태길, 차주환, 김시현, 장백일, 허세욱, 정진권, 박연구, 윤재천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수필문학』은 창간한 해로부터 정식의

작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수필 이론과 비평에 관한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 시기 김열규는 국문학자로서, 수필가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김열규는 수필 문단에 들어가 수필문학의 세밀한 부분에 관심을 쏟고 직접 창작에도 참여하면서 한국문학사에서 수필이 차지하는 위상과 무게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⁵⁾ 수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인 그의 행보는 여러 수필 전문지에 꾸준히 참여한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⁶⁾ 또 1991년 경남 고성으로 귀향한 이후 수필창작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여러 수필집⁷⁾을 남긴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그의 수필론에 대한 본격 연구는 미흡한 편⁸⁾이지만 김열규

로 수필가를 배출하였는데 진웅기, 유병근, 정재은, 신택환, 유혜자가 70년대에 신인으로 등단했다. 197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인 수필문학의 활성화가 이뤄진 것은 우리 수필문학사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현상으로 중흥의 계기를 마련한 시기였다(권대근, 『수필은 사기다』, 유월의 나무, 2015, 35-39쪽 참조).

- 5) 신재기, 『김윤식의 수필론 연구』, 『국학연구논총』제24집, 태민국학연구원, 2019, 316쪽.
- 6) 수필가로서의 그의 활동은 국문학자·한국학자로서의 활동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이 또한 일일이 열거하기에 쉽지 않을 만큼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수필과 비평』, 『월간 에세이』, 『월간 한국수필』 등에서 평론을 주로 담당하면서 작품 투고도 하였다. 1991년 귀향 후에도 『월간 한국수필-자란만통신』 코너를 통해 경남 고성에서의 전원생활 소식을 전하였다. 또한 지방문예지 『수향』에도 꾸준히 작품 투고를 하였다. 이미 1980년대부터 한국수필의 정체성 모색 연구에 관심을 보이며 『수필의 해학성』(『한국수필』 제5회, 한국수필가협회, 1986.7), 『해금시대의 수필문학-정지용론』(『수필공원』 가을호, 한국수필문학진흥회, 1988) 등을 발표하였다. 이런 활동은 그의 전 생애 동안 꾸준히 이어졌다.
- 7) 『삶의 의미 묻는 그대에게』를 비롯하여 1991년 귀향 후 그의 수필집은 대체적으로 귀거래류의 성격을 띤다. 『빈손으로 돌아와도 좋다』(제삼기획, 1993), 『꿈엔들 잊힐리아』(호영, 2006), 『자연에서 찾은 노년의 행복』(이숲, 2010) 등을 포함하여 총 20여권의 수필집을 출간하였다. 그의 수필세계를 아우르며 볼 수 있는 선집으로는 『바다바라기』(선우미디어, 2003), 『산에 마음 기대고 바다에 영혼 맡기면』(좋은수필사, 2009), 『김열규 수필선집』(지식을만드는지식사, 2017) 등이 있다.
- 8) 지금까지 김열규 수필세계에 대한 선행 탐구는 다음과 같다. 신동욱, 『김열규의 수필세계-삶에의 詩的 洞察과 그 아름다움의 抒情』, 『수필문학』, 수필문학사,

수필세계의 큰 맥을 간과한 선행 연구는 그의 수필론을 이해하는 데 지침이 된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동욱은 김열규의 서정적 산문들은 인간적 풍모(風貌)와 시적 흥취(興趣)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의 수필은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내적 형성층들을 냉철하고 엄정한 논리가 아닌 깊이 있는 사색을 통하여 열어 보여준다고 평가한다.⁹⁾

이부영은 김열규의 수필을 정신분석적 측면에서 접근 분석하였다. 글이란 인간과 생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심리학이라며 김열규의 수필에는 마음의 뿌리를 지키려는 굳은 의지와 호소가 깃들여 있다고 평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김열규의 수필세계는 진실로 자신의 개성과 울림을 표현하는 곧 융의 ‘자기실현’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재기는 김열규가 다른 어떤 수필 이론가보다 수필의 일상성을 중시하며 일상성을 수필의 본질로 보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자아의 일상 경험이 시와 소설에서는 시인과 소설가의 사상과 정서를 표현하는 데 하나의 재료로 소용된다면 수필에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밝히며, 김열규의 수필관은 우리 수필 문학사에서 이론적 지평을 확대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하고 있다.¹⁰⁾

한편, 김우현은 서구문학의 모방의 단계를 거쳐 재발견되는 동양적인 정신세계의 궁극과 그 고유한 리듬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열규의 수필세계는 독창적이라고 보았다.¹¹⁾ 이 시기의 이러한 평가는 ‘한국 수

1979; 이부영, 『김열규 수필론-創造의 背理와 永遠한 아니마』, 『수필문학』, 수필문학사, 1979; 신재기, 『김열규 선생을 추모하며』, 『수필과 비평』 통권 146, 수필과비평사, 2013.12. 그간 이루어진 비평은 일찍이 김열규 수필 세계의 가치를 확인하고 연구의 길을 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9) 신동욱, 앞의 글, 42-43쪽.

10) 신재기, 『김열규 선생을 추모하며』, 『수필과 비평』 통권146, 수필과비평사, 2013, 90-91쪽.

11) 김우현, 『김열규-수필문학 신인상 수상 대담』, 『수필문학』, 수필문학사, 1979, 59쪽.

필'의 정체성 형성 과도기인 1950,60년대의 문단 변화와 맞물리는 부분이다. 1950년대 중후반 이후 외래 풍조의 무비판적인 수용으로 인한 '주체성의 위기'라는 담론적 경향은 1960년대에 본격화된다. 이 시기 에세이 역시 한국의 고유한 특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한국적인 것'에 대한 한국문화론이 대두되었다.¹²⁾ 즉 '60년대식' 서구 지향적 지성과 교양의 산물인 에세이붐은 교양의 지형도 혹은 대중성의 구조 변화 때문에 1970년대에 들어 '한국 수필'의 붐이라는 다른 분위기로 넘어간다.¹³⁾

이 시기에 즈음하여 김열규는 수필문단에 진입하여 본격적으로 수필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해 이론을 개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편협한 장르의식으로 대학의 국문학이 수필을 신변잡기로 취급하며 문학 밖으로 밀어내던 문단 상황 속에서 김열규는 수필을 '수필'이라고 호명하며 문학의 영역 안으로 기꺼이 끌어안았다.¹⁴⁾ 수필이 작가의 삶의 이야기와 내면세계가 가장 밀도 있게 전달되는 문학이라면, 수필론은 그러한 수필을 쓴 작가의 삶의 태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김열규는 수필론에 관한 단독 저서를 출간한 적은 없다. 다만 그의 수필관을 탐색할 수 있는 대표 작품으로는 「현대인이 수필을 읽는 이유」¹⁵⁾, 「나의 수필관: 그 좋은 글자, 수隨에 부쳐서」, 「수필과 수선화와 봉선화」, 「수필은 곧 비평」, 「수필, 신변잡기가 왜 흥인가」, 「책읽기 책먹기; 수필을 쓰게 되기까지」¹⁶⁾ 총 6편을 들 수 있다. 이 글은 수필작품론이 아닌 수필론을 살펴보기 위한 시도이므로 위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2) 안수민, 「1960년대 에세이즘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42-45쪽.

13) 천정환, <70년대 수필 붐...범우사 '에세이문고' 누구나 한두 권>, 『한겨레신문』, 2015.09.03.

14) 신재기, 『기억과 해석의 힘』, 소소담담, 2016, 30쪽.

15) 김열규, 『시간의 빈터에서』, 범우사, 2007.

16) 김열규, 『산에 마음 기대고 바다에 영혼 맡기면』, 좋은수필사, 2009.

2. 수필의 글감

문학은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찾아가는 통로다. 작가가 어떤 사건에 대해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작품으로 쓰는 것이 수필이다. 수필은 작가의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글인 만큼 일상의 모든 일들이 문학적 감동의 매개체가 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일상의 일들 중에서 문학의 매개체가 되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글감이라고 한다. 글감, 즉 소재는 글의 재료이며 필자의 관찰과 사색의 대상이자 그가 사실과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매개체다.¹⁷⁾

수필은 일상과 친밀한 생활문학이다. 글을 쓰는 이의 직접적 삶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문학이기 때문이다. 우리 삶의 터전은 곧 일상이다. 일상은 몸 가까이 둘러싼 환경 즉, 신변에서 일어나는 삶의 구체적인 양태다. 수필의 소재는 일상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구체적 경험이나 추상적 이론 등 이 세상이라는 텍스트 자체가 모두 소재가 될 수 있다. 다만 장르적 특성상 수필은 작가의 직접적 사유와 체험을 거친 것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열규 역시 수필의 글감은 일상과 신변의 이야기라고 밝히며 수필의 진면목은 바로 소재의 일상성을 창조적으로 발굴하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

수필은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을 별다르게 캐고 묻고 따지고 한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들 삶에 끼쳐주게 될 만만찮은 의미를 그리고 가치를 잡아내게 된다. 그야말로 ‘진흙 바닥에서 보석 캐기’다. 그게 수필의 자랑스런 본색이다. 신변은 비로소 수필답게 만들어 준다.¹⁸⁾

‘일상’이란 ‘날마다’, ‘다른 날들과 다름없는 보통의 날’(평상), ‘늘 되풀

17) 최시한, 『수필로 배우는 읽기』, 문학과 지성사, 2001, 186쪽.

18) 김열규, 『수필, 신변잡기가 왜 흥인가?』, 『산에 마음 기대고 바다에 영혼 맡기면』, 좋은수필사, 2009, 164쪽.

이되는 나날들’, 또는 ‘그날 그날’(매일) 등을 뜻하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일상의 특성을 일컫는 일상성은 바로 현존재의 존재 양식¹⁹⁾이다. 그런 점에서 일상성이란 개인의 삶의 역사 진행을 지배하는 시간의 조직이며 리듬²⁰⁾이라 할 수 있다. 이 일상성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간이 처한 조건에 의해 성격이 규정되기 마련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도 일상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필연성을 띠며 진행되는 일이 대개 비슷하고 반복되므로 유사성과 반복성을 지녔으며, 특별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평범성을, 결국 덧없이 지나간다는 점에서 일시성을 띤다.²¹⁾ 결국 존재 양식으로서의 ‘일상’과 구체적 생활측면의 ‘생활’을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일상성은 생활환경의 성격일 수밖에 없다. 일상성을 어떤 문맥에 놓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다양하게 변주²²⁾되는데 대개 예술이나 문학 등 창조적 활동에서는 일상은 언제나 극복되어야 할 상태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김열규는 신변의 이 일상성이야말로 수필을 수필답게 해주는 수필 소재의 고유의 특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필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의 소재를 작가만의 문학적 시선으로 해석하는 문학이다. 신변의 소재가 일상성을 지녔다하더라도 그 해석이 별반 다를 거 없는 일상성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 즉 소재를 ‘별다르게’ 캐고 묻고 따지는 과정이 동반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신변의 이야기

19) 독일말 ‘Alltäglichkeit’(일상성) 속에는 ‘alle Tage’(모든 날들)가 들어 있다. 따라서 ‘일상성’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날의 모습’, 하이데거를 따라 말하자면 자신에게 주어진 나날들 속에서 ‘우선 대개’의 방식으로 ‘실존하는 양식’을 일컫는 말이다. 이기상, 『하이데거에서의 일상의 의미(일상과 과학, 실존과 탈존)』, 『예술가를 위한 철학 강의 ‘일상의 미학’』, 일주아트하우스, 2001.9.8, 4쪽. (조형국, 『하이데거의 현사실성의 해석학- 삶과 염려 그리고 본래성 개념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122쪽 재인용).

20) 카렐 코지크, 박정호 역, 『구체성의 변증법』, 거름, 1985, 66쪽.

21) 강영안, 『일상의 철학』, 세창, 2018, 57쪽.

22) 홍용희, 『일상성, 깨우침과 발견의 영토』, 『아름다운 결핍의 신화』, 천년의 시작, 2004, 210쪽.

가 수필의 소재가 되기 위해서는 삶에 끼치는 어떤 의미와 가치의 발견이 전제된다는 말이다. 소재를 발견해내는 작가의 안목이 요구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김열규는 이 과정을 진흙 바닥에서 보석을 캐는 것에 비유한다. 수필의 글감을 찾는 것은 다양한 사건·사고들로 질척대는 진흙 같은 일상 속에서 삶의 깨달음을 전달하는 매개체를 발견하는 일이다. 수필가는 일상에서 다양한 글감을 찾지만 그것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작가만의 사유로 해석하여 재구성한다. 해석은 곧 김열규가 말하는 ‘캐고 묻고 따지는’ 과정이다. 여기서 일상적 소재의 변용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변용은 작가가 대상의 모양이나 형태를 의식적으로 확대하거나 표현하는 방법이다. 즉, 소재를 심미적 관점에서 형상화하여 주제를 구현하는 것이 수필적 변용이다.²³⁾ 소재의 남다른 해석은 곧 일상의 재해석이기도 하다. 이런 사유의 과정을 통해 수필은 문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수필을 소재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일상의 문학, 생활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성은 마치 수필의 문학성을 방해하는 태생적 한계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김열규는 수필의 소재가 지닌 일상성을 기꺼이 인정하되 그것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수필을 쓰는 자의 몫임을 상기시킨다. 수필문학의 태생적 딜레마를 부인하는 데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난제를 끌어안고 극복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수필문학이 거듭나는 길임을 피력하고 있다. 수필가의 안목이란 단지 일상의 잡초더미에서 향기로운 꽃만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잡초의 고유한 의미를 물을 줄 아는 일이다. 김열규는 수필의 글감이 지닌 특성을 ‘벼룩시장’에 비유하였다.

수필은 ‘벼룩시장’을 닮았다. 얼핏 보아 하찮은 것 같은 물건들. 우리들의 생활 속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굴러다니기에 신통스러울 것이 없으

23) 신재기, 『수필의 기본 개념들』, 소소담담, 2018, 175쪽.

면서도 생활의 때가 낀 것들, 수필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얘기한다. 그래서 수필은 가장 손때 묻은 글이 된다.²⁴⁾

벼룩시장의 물건들은 생활의 때가 낀 것이 멋이다. 새 물건이 흉내 낼 수 없는 고풍미, 인간의 내력, 희로애락을 공감한 세월이 깃든 물건이다. 수필의 글감은 생활 다반사에 있는 삶의 내력을 품은 것들임을 말하는 것이다. 오래된 물건이 지닌 특유의 향처럼 수필은 작가의 삶의 향기가 있다. 그것은 소재의 선택과 해석 그리고 의미화 과정을 통해 문장의 결에서, 행간의 여운에서 드러난다. 김열규는 한 편의 수필을 쓰는 것은 마치 오래된 물건들이 두서없이 널려있는 벼룩시장에서 자기만의 보물을 찾아 자기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수필론의 기반은 결국 일상성이다. 일상의 주체가 매일 매일을, 또 신변의 사물과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 세계의 의미는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하이데거식으로 말하자면 주체성을 잃어버린 채 사는 비본래적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독자적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자기를 기능적으로 기투하는 자각적 삶의 양식, 즉 본래적 존재양식²⁵⁾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일상은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이다.

김열규의 수필의 관점 역시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평범한 일상을 바라보는 고유한 개성적 시선, 즉 ‘수필의 눈’을 강조하는 것이다. 수필의 눈이란 늘 보던 사물들에서 새로운 의미를 포착하여 문학적 단계의 경이로움으로 끌어올리는 문학적 시선을 말한다. 수필은 일상의 체험이 ‘수필적 사건’으로 다가온 창작의 결과물이다. 일상을 향한 새로운 시선과 섬세한 통찰로 지난날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의미화하여 일상 체험에 문학적 세월의 결을 입히는 작업이다. 이처럼 수필은 어떤 대상, 기억 등과 같은 일상의 ‘손때 묻은’ 소재에 작가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의 글쓰기다. 평범한 일화 속에서 문학적 감성의 축으

24) 김열규, 『현대인이 수필을 읽는 이유』, 『시간의 빈 터에서』, 범우사, 2007, 163쪽.

25) 소광희,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강의』, 문예출판사, 2019, 48쪽.

로 소재를 발굴하여 의미를 부여할 때 한 편의 수필이 탄생한다.

일상은 단지 자신을 둘러싼 물리적 공간과 시간으로 인식하는 인식론적 개념이 아니라 실존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수필의 텃밭인 일상은 삶을 해석하는 눈을 넓히는 존재론적 공간이다. 평범한 일상의 소재를 문학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의미화하는 작가의 삶의 태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글이 수필이다. 작가의 살내음 나는 일상에서, 작가의 눈으로 피워낼 수밖에 없는 창조적 소산이다. 김열규는 벼룩시장 같은 일상에서 하찮거나 신통치 않은 듯한 소재를 붙들고 삶의 진리와 존재의 의미를 캐묻는 것을 수필의 본령이라고 보았다. 수필가의 개성적 해석에 의해 소재가 문학적으로 변용됨으로써 수필의 문학성이 획득되는 것이다.

3. 수필의 언어

수필은 경험적 사실을 소재로 삼는 문학이다. 작가의 직접적 경험을 토대로 하지만 정확한 사실 전달에 글의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다. 수필 언어가 다른 장르에 비해 비교적 사실적 언어에 치중한다 하더라도 형상화를 거친 문학적 언어를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학의 언어는 무의미한 상태로 무질서하게 혼재하는 실제 삶의 현실을 작가의 상징화 능력과 구성 능력으로 의미와 질서를 부여한다.²⁶⁾ 수필은 화자가 직접 나서서 말해주는 방식이다. 작가의 체험을 소재로 삼아 재구성하여 문학적 구조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수필의 글쓰기 방식은 ‘보여주기’보다 ‘말하기’에 치중한다. 문장 기술에서 묘사 보다는 설명적 진술이 기본이다.

수필 창작은 일상의 체험이 내면의 사유와 언어로 재구성되는 과정이

26) 신재기, 앞의 책, 59쪽.

다. 여기서 수필 언어는 소재와 의미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조직된다. 수필의 소재는 작가의 심미적 안목을 바탕으로 미적 언어로 변용되며 문학적 가치를 획득한다. 그리고 선택된 소재가 삶의 보편적 진리를 담아내는 의미화를 거치며 작품의 주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로써 수필은 사실 전달보다 정서 공감이라는 문학의 통로를 연다. 이때 소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작가만의 수필 언어가 어떻게 탄생되는가와 직결된다. 김열규는 수필 언어를 찾아가는 것을 ‘체험을 향한 몸부림’이라고 하였다.

삶의 과정을 이루는 크고 작은 사건, 바람처럼 스쳐가고 그림자처럼 끼쳤다 가는 물건이며 사람들, 전류마냥 전율케 한 감동- 이 모든 것을 한사코 놓치지 않으려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는 있는 법이다. 그것들을 그냥 흘러버릴 수가 없어서 기를 써 생각에 잠길 때가 있다. 그것들을 고스란히 품고서는 그것들이 말言語의 형성을 지니고 한 마리 병아리처럼 푸드덕 부화하는 순간을 기다릴 때가 있다. 그 모든 것을 오직 내가 어렸을 적부터 지녔던 그 말로 잡아보려 할 때가 있다. 이것이 바로 체험을 향한 몸부림이다.²⁷⁾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하는 창조적 예술이다. 세상 만물은 언어화를 통해 하나의 사물이 되고 언어로 호명됨으로써 존재로 거듭난다. 장르를 떠나 그만의 문학 언어를 찾아가는 여정은 작가의 끊임없는 창작 고뇌가 요구된다. 지난 일상의 경험을 떠올리며 ‘기를 써 생각에 잠길 때’란 그것들이 작가의 내면에서 구조화되며 언어로 재배치되는 과정이다. 작가만의 수필 언어는 “한 마리 병아리처럼 푸드덕 부화”하듯이 자기 안에서 오래된 삶의 언어로 발효되기를 기다려 탄생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추상적 개념어나 상투적 일상어가 아닌 온전히 작가 자신의 감각에서 발현되는 ‘체험의 언어’를 찾을 수 있다. 그 작품에 적합한 언어를 찾

27) 김열규, 앞의 책, 159쪽.

는 일은 경험의 소재와 의미 부여의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것은 체험을 다시 사는 일이라는 점에서 수필 언어는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김열규가 이토록 강조하는 체험의 의미는 ‘작가만의 언어’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만의 언어란 일상 속 체험을 향한 몸부림을 거친 그 심연의 말들이 가장 강력하게 약동하여 솟아난 진실한 말 그것이다. 삶의 여러 사건들 중 스스로의 말 속에 담은 것만이 체험으로 남는 것은 자신이 몸소 겪은 바를 개성적 관점으로 해석하여 자신만의 창조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글이 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수필가는 일상성 속에 묻혀 있는 삶의 진실을 철학적으로 인식하여 미학적으로 구조화하고 나아가서 문학 언어로 형상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²⁸⁾

문학의 언어는 지시적 차원을 넘어선다. 작가의 창의적 관점에 따라 해석한 의미를 감각적이고 함축적으로 담아내는 언어를 지향한다. 상투적 일상어를 ‘낯설게’ 함으로써 문학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작가만의 수필 언어를 창조하는 것은 수필작품의 문학성 확보를 위한 수사적 전략에 해당한다. 수필은 산문적 진술로 쓰지만 정확성을 지향하는 과학적 언어나 지시적 언어와는 다르다. 문학 언어는 기표와 기의의 일대일 대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수필 언어의 본질은 소재가 담고 있는 지시적 뜻을 초월하여 그 너머의 확장된, 심화된 의미를 함축적으로 끌어오는 데 있다.

내 의식과 정서가 깃든 집으로서의 육체, 아니 그것들이 비로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근거로서의 내 육신을 내걸고서 하는, 내 생각이 생동하는 생활의 현장에서 사로잡은 나의 언어, 그것이 수필이다. 수필은 이보다 다르게 써질 것 같지 않다.²⁹⁾

28) 안성수, 『수필오디세이』, 수필과비평사, 2015, 127쪽.

29) 김열규, 앞의 책, 161쪽.

수필은 작가의 일상적 체험을 언어미학적으로 창조한 미적 산물이다. 작가의 신변에서 일어나는 다반사를 자신의 관점에서 의미화하여 쓰는 글이다. 단순한 체험의 기록이 아닌 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로 가꾸는 과정을 거치며 창조적 개성이 가미되기 마련이다. 수필의 언어는 일상어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필의 문학성 문제는 이 지점에서 걸린다. 소재의 형상화에서 비유와 상징 등 수사적 전략이 동원되기는 하지만 작가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산문 진술에 치중해야 하는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필 언어에 대한 김열규의 답은 ‘현장에서 사로잡은 언어’이다. 수필을 쓰는 작가의 언어란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작가의 체험 그만큼, 곧 세계와 사물을 이해한 그만큼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 건져 올린 치열한 깨달음으로 그 겪은 바를 자기만의 표현으로 드러낼 때, 비로소 오롯한 작가만의 수필 언어가 된다는 뜻이다.

한 편의 수필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일상에서의 자신과 내면의 자신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다. 하루하루 온몸과 정신을 통틀어 직면한 낱낱의 사건들은 삶의 과정을 이루고 이 사건들을 되돌아보며 생각에 잠기는 성찰이 수필을 쓰는 첫 번째 작업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기억들은 자기만의 개성적 표현으로 부화되는 시간을 거친다. 김열규가 말하는 체험을 향한 기다림이다. 그러한 체험만이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체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체험은 단지 몸으로 겪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 세계와 사물을 이해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다. 이해한 것만이 ‘내 것’이 되어 ‘나만의 언어’로 부화될 수 있음을 말한다.

김열규가 생각하는 수필은 이처럼 생동적이다. 생활의 현장에서 육신을 내걸고서 한 생각으로 붙잡은 언어이다. 수필은 한 인간의 의식과 정서가 깃든 온몸을 투지한 체험이 바탕이 된 언어로 쓰는 글이다. ‘나의 언어’란 상념에 머문 묘사가 아니라 일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활의 체

취가 묻어나는 말이다. 김열규의 수필 언어의 귀착점은 ‘나 아니면 안 될 말’이다. 그는 “어떤 학문보다 어려운 텍스트가 문학이라고” 하며 “논문을 쓸 때보다 수필을 쓸 때 전혀 속도가 나가지 않는다.”³⁰⁾고 고백한 바 있다. 이런 소신은 수필 언어를 찾기 위한 그의 진지한 창작 태도를 잘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은 미학적 언어의 구조물이다. 언어를 매개로 한 예술인만큼 수사적 전략은 문학성 확보와 상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수필 역시 작가만의 새로운 해석과 개성적 형상화를 통해 심미성을 획득할 수 있다. 수필의 언어는 작가의 생활에서 발효된 언어이다. 작가가 자신의 일상적 체험을 재구성하며 삶과 세계를 의미화한 언어이다. 수필의 문학적 창조성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수필은 상념의 나열이 아니라 생동하는 삶의 현장에서 작가의 온몸으로 쓰는 글이다. 그런 점에서 김열규에게 수필은 한 사람의 순수 자연인이 세계와 사물과 마주하는 체험을 통해 언어로 끌어들이는 세계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수필이야말로 삶과 세계를 재조직하고 인식의 유대를 정착케 하며, 삶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언어”³¹⁾라고 본 그의 관점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수필의 지향점

수필은 자기 고백의 글쓰기다. 1인칭 화자가 자기 자신의 체험을 말하는 형식이므로 수필에서는 쓰는 이의 내면이 솔직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 고백의 행위는 언제나 진솔함과 진정성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담보될 때 독자와의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수필의 문학적 가치

30) 염기용, 「인물기행: 귀향교수 김열규의 가을」, 『한국논단』 38호, (주)한국논단, 1992, 164쪽.

31) 김태길 편, 『평론과 수필』, 『수필문학의 이론』, 춘추사, 1991, 61쪽.

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자기 고백의 진정성은 수필의 본질이다.

수필의 본질에 대한 물음은 우선 ‘수필(隨筆)’의 풀이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수필은 글자 그대로 붓 가는 대로 써지는 글이다”³²⁾라고 한 김광섭의 정의는 지금까지 정설처럼 내려오고 있다. 1930년대에 수필이 비로소 문학의 한 장르로 진입하면서 그에 따른 수필론 연구가 활발하게 개진되었다. 그 중에서도 김광섭·김진섭 두 사람의 수필론은 한국 수필의 개념 정립에 큰 토대를 이루었다. 특히 김광섭의 ‘붓 가는 대로 써지는 글’이라는 정의는 수필의 본질과 장르적 특성을 규정짓는 대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통용되는 이러한 수필의 개념을 가장 먼저 언급한 기록은 남송(南宋)의 홍매(洪邁)의 『容齋隨筆』의 서문에 나온다. 홍매는 “그때그때 혹 뜻한 바 있으면 앞뒤의 차례를 가려 챙길 것도 없이, 바로 바로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수필이라고 일컫게 되었다.”³³⁾라고 기록하였다. 김열규 역시 수필의 지향점을 ‘수隨’ 이 글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탐색하였다.

‘수隨’는 참 좋은 글자, 멋진 한자다. 그게 마음에 들어서도 수필을 쓰게 된다. ‘수隨’, 그 글자 따라서 수필을 수시로 무시로 쓴다.

수隨는 우선 ‘따를 수’라서 당연히 따를 만한 것, 더불어서 순종해서 마땅한 것, 이를테면 순리(順理)를 따름을 일컫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진리를 따르고 진정(眞情)을 따르는 것이다. ‘隨’의 세 번째 미덕은 사람들의 심덕(心德)의 본보기를 따라서 쓰고 자연의 섭리가 가르치는 바를 좇아서 쓰는 글이다. 네 번째 미덕은 눈에 안 보이는 세상만물의 연줄, 인연의 매듭이 곧 수隨다. 다섯 번째 후덕함은 신령을 섬기고 신과 손 잡고 어디든 언제든 가고 또 가는 것이 다름 아닌 수隨다. ...(중략)...

이렇듯 수隨의 다섯 가지 미덕과 그것을 글로 살린 수필의 효험과 우리는 수시(隨時)로 수행(隨行)하고 싶다. 그것이 삶의 일상적인 수행(修行)이

32) 김광섭, 『수필문학소고』, 『문학』 1호, 시문학사, 19341.

33) “意之所之 隨即記錄 因其後先 無復詮次 故目之曰隨筆”(최승범, 『수필문학』, 형설출판사, 1973, 15쪽).

되기를 기원하고 싶다.³⁴⁾

김열규가 읽은 ‘수隨’의 뜻은 ‘순종해서 마땅한 순리와 진정을 따르다’, ‘사람의 심덕과 자연의 섭리를 따르다’, 그리고 ‘세상만물의 연줄을 관찰하다’, ‘신령이 깃든 곳을 찾아 물어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수隨’를 따라서 수시로 무시로 글을 쓴다는 말의 핵심은 “수시隨時로 수행隨行하”여 “삶의 일상적인 수행修行”으로 삼고자 하는 데에 있다. 김열규가 ‘수隨’에 부여한 의미의 요체는 ‘수행修行’이다. 수행이란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는 궁극적으로 자기성찰의 행위이다. 수필은 “개성적이고 심경적이며, 심경의 자연적인 유로다”³⁵⁾라는 고전적 맥락에서 성찰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한 점이 김열규만의 창조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기성찰의 터전은 바로 일상이며 그 속에서 수시로 무시로 자기를 돌아보는 수행이 이루어진다고 본 관점은 수필과 일상성의 상관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창조적 해석은 신변잡기, 무형식의 형식 등으로 폄훼되어온 수필의 정체성 물음에 고전적이면서도 보다 심화된 의미로 답하는 것이다.

이처럼 수필을 수행의 연장선상에 둘 수 있는 근거는 자기 자신과의 내밀한 대화일 것이다. 자기 자신과의 내밀한 대화 역시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 고백의 하나다. 물론 수필에서 추구하는 고백의 형식은 독자와의 공감을 지향하는 열린 고백이다. 어떤 고백이든 문학에서의 고백의 본령은 존재의 의미와 인생의 물음을 직면하는 것이다. 푸코에 따르면

34) 김열규, 『나의 수필관: 그 좋은 글자, 수隨에 부쳐서』, 『산에 마음 기대고 바다에 영혼 맡기면』, 좋은수필사, 2009, 150-155쪽.

35) “수필이란 글자 그대로 붓 가는 대로 써지는 글이다. 그러므로 다른 문학보다 더 개성적이며 심경적이며 경험적이다. 우리는 오늘날까지의 위대한 수필문학이 그 어느 것이 비록 객관적 사실을 취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심경에 부딪치지 않은 것을 보지 못했다. 강렬히 짜내는 심경적이라기보다 자연히 유로되는 심경적인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 점에서 수필은 시에 가깝다. 그러나 시 그것은 아니다.”(김광섭, 앞의 글, 1934).

고백은 말하는 주체와 언표의 주어가 합치하는 담론의 의식으로 언표행위만으로 진실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의식이라는 것이다.³⁶⁾ 따라서 고백은 혼잣말의 독백과는 엄연히 다르다. 이처럼 수필은 1인칭 화자 즉 작가의 경험이 내재화되어 고백으로 표출되는 문학이다. 내재화작업에는 면밀한 자기응시와 탐색의 시간이 요구된다. 김열규는 이와 같은 수필의 속성을 수선화와 봉선화에 비유하였다.

수선화는 나르키소스의 영혼이다. 누구나 해야 할 지극한 자기 응시, 자기 탐색의 보람이 수선화로 피어나고 승화한 것이라면 어떨까 싶다. 그래서 나는 우리들 누구나가 추구하는 수필의 정精이, 한 송이 수선화 이듯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다. ...(중략)...

영근 씨앗 주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팽!팽! 터진다. 봉선화는 제 알뜰한 속을 환하게 드러내 보인다. 내심의 깊이를 거리낌없이 드러내는 꽃, 그게 봉선화다.

수선화와 봉선화, 그 둘이 하나로 어울려서 피어나듯이 수필이 지어졌으면 하고 기구祈求하고 싶다. 알뜰한 자기 응시와 자기 진실의 토로가 우리들 누구나의 수필에서 단짝이 되기를 간곡히 또 절실하게 기구한다.³⁷⁾

일찍이 수필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은 “숨김없이 자기를 말하는 것과 인생사에 대한 방관자적 태도, 이 두 가지에 있을 따름”³⁸⁾이라고 하였다. “수필은 자기의 심적 나체다.”³⁹⁾라는 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수필의 특성과 나르키소스 신화는 ‘자기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 지점에서 맞닿는다. 수필의 진면목은 진솔한 자기 응시를 통한 자기 이해와 삶의 해석을 풀어놓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의 자아와 대화하고 지난날의 상처를 직면해야하는가 하면 자신

36)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1-삶의 의지』, 나남출판사, 1990, 79쪽 참조.

37) 김열규, 『수필과 수선화와 봉선화』, 앞의 책, 156-158쪽.

38) 김진섭, 『수필의 문학적 영역』, 『동아일보』, 1939.3.14-23.

39) 이태준, 『문장강화』, 창작과 비평사, 1988, 166쪽.

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성숙한 자기 수용의 태도가 요구된다. 실제 김열규는 삶의 혼돈과 불안과 무의미를 그때그때 현장에서 기동성 높게 넘어서기 위한 노력으로 수필 쓰기를 일로 삼았다고 하였다.⁴⁰⁾ 자기 탐색 과정이 바로 한 송이 수선화 같은 ‘수필의 정(精)’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필의 특성은 ‘수필적 자아’ 작가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서술한다는 점에서 가능하다. 자기 응시는 외부 사물이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지만 마침내 내면으로 돌아가 질문을 던지는 자기 탐색으로 귀결된다. 김열규는 수필은 사물의 본성을, 세계의 진실을 그리고 인생살이의 묘방(妙方)을 찾아내고 들추어내는⁴¹⁾ 문학이라고 하였다. 한 편의 수필을 쓴다는 것은 순수 한 존재로서의 실존의 물음과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자기성찰 등 입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여정임을 말하는 것이다.

김열규에 따르면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성찰이야말로 수필의 본질이다. 수시(隋時)·수행(隨行)을 통해 수행(修行)된 체험의 언어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자기 응시와 자기 탐색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에게 수필은 일상의 체험과 사물을 자신의 언어로 끌어들이는 실천적 통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필은 “나의 속과 안을 향한 구심적인 문학수련”⁴²⁾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김열규는 수필쓰기를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존재자로서 이 세계를 해석하는 하나의 문학적 수련으로 여겼다. 즉 자기만의 언어로 내심의 깊이를 드러내는 구심(求心)의 문학이 되는 것을 수필의 지향점으로 삼았던 것이다.

40) 김태길 편, 『평론과 수필』, 『수필문학의 이론』, 춘추사, 1991, 61-65쪽 참조.

41) 김열규, 『수필은 곧 비평』, 앞의 책, 160쪽.

42) _____, 『책읽기 책먹기 ; 수필을 쓰게 되기까지』, 앞의 책, 169쪽.

5. 결론

수필 이론과 비평에 관한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1970년대에 김열규는 국문학자로서, 수필가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수필 문단에 들어가 수필문학의 세밀한 부분에 관심을 쏟고 직접 창작에도 참여하면서 한국문학사에서 수필이 차지하는 위상과 무게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김열규의 수필에 대한 애정에 근거하여 김열규의 수필론을 탐색하기 위해 수필의 글감, 수필의 언어, 수필의 지향점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여 분석해보았다.

문학과 예술에서 일상성은 마치 극복되어야 할 상태로 인식되는 경향이 짝지만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일상성은 수필의 본질이기도 하면서 수필의 문학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요소라는 이중 잣대 앞에서 언제나 논의의 중심에 있어왔다. 이에 대해 김열규는 수필의 글감에 대해 일상성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수용하며 다만 ‘별다르게’ 캐고 묻고 따지며 그 너머의 의미를 찾는 것이 작가의 몫이라고 강조하였다. 작가의 일상 속 경험이 수필문학의 소재라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일상성과 분리될 수 없다. 삶은 일상의 터전에서 진행되고 일상은 곧 실존의 양태이기 때문이다.

일상의 소재가 문학작품으로 형상화되는 데는 언어라는 통로를 거쳐야 한다. 문학 언어는 어떤 형태로든 수사적 전략이 있기 마련이다. 사실의 경험을 고백하는 수필은 산문 진술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수필 역시 문학적 언어 구현이 동원된다. 다만 수필이 1인칭 화자의 고백의 글쓰기라는 점에서 김열규는 특히 수필언어는 작가의 삶과 밀접해야함을 강조한다. 삶과 밀접한 언어란 ‘현장에서 사로잡은 언어’이다.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작가의 체험 그만큼, 곧 세계와 사물을 이해한 그만큼의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 건진 깨달음이 자기만의 표현으로 부화될 때까지 끊임

임없이 체험을 내재화하는 과정을 거칠 때 그는 비로소 ‘나 아니면 안 될 말’, ‘나만의 언어’를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김열규가 제시한 수필의 글감과 언어에 대한 이론은 궁극적으로 자기고백의 글쓰기인 수필의 본령을 보다 진정성 있게 이행하는데 요구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고백은 혼잣말의 독백과 달리 듣는 이와는 진실한 공감을 담보로 한다. 고백은 실존의 물음과 인생의 가치를 질문하는 가치적 행위이다. 김열규는 자기 고백의 글쓰기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는 데는 자기 응시와 자기 탐색이 기반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수필隨筆의 ‘수隨’에 수시隋時·수행隨行을 통한 수행修行의 의미를 부여하며 마침내 그의 수필론은 일상의 소재가 작가만의 체험의 언어로 부화되어 구심求心の 단계로 나아가는 데까지 아우르고 있다.

김열규 수필론의 저변에는 일상성이 깔려있다. 일상의 문학, 생활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성은 마치 수필의 문학성을 방해하는 태생적 한계처럼 여겨져 왔다. 그는 수필문학의 딜레마를 부인하는 데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난제를 끌어안고 극복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수필문학이 거듭나는 길임을 피력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김열규 수필론이 지닌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국문학자, 민속학자, 문학평론가 등 치열한 학문 연구 틈 속에서도 한국 수필의 고유한 영역을 모색하고자 여러 작품 활동과 수필이론을 개진하였다. 수필을 신변잡기로 취급하며 문학 밖으로 밀어내던 문단 상황 속에서도 수필을 ‘수필’이라고 호명하며 문학의 영역 안으로 기꺼이 끌어안고자 하였다. 이처럼 수필문단에서의 적극적 활약상에 비해 그의 수필이론이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은 학자로서의 입지가 워낙 굳건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립적으로 수필 전문이론서나 비평서를 출간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 글에서 김열규의 수필론을 주목한 이유는 1990년대부터 두드러진 수필인구의 양적 팽창에 따른 수필문학의 위상 문제 앞에서 그가 한국

수필의 정체성 천착을 위한 ‘일상성의 수필론’을 과감히 펼쳤다는 데 의의를 둔 때문이다.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대중화된 수필은 한국수필의 정체성과 위상 문제를 재점화시켰고 그것은 언제나 ‘문학성’이라는 딜레마를 전제한 상태였다. 이 시기 수필문학의 질적 내실을 위해 다양한 이론들이 개진되었다. 대표적으로 수필의 문학성 담지를 위한 수사학적 차원에서의 허구의 수용 논쟁이나 경수필硬隨筆 쓰기의 권장 및 그 문학성에 대한 논쟁⁴³⁾을 들 수 있다. 결국 주요 쟁점은 수필의 문학성 제고를 근간으로 하는 수필문학의 정체성 정립이었다.

그러나 김열규는 수필의 본령은 ‘일상성’에 있음을 피력하면서 일상성의 철학으로 수필문학의 정체성 탐색을 시도하였다. 수사학적 표현을 통한 문학성 제고가 아닌 수필이 내포한 문학적 본질을 캐물음으로써 ‘문학주의’에 함몰된 채 외연 확장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수필문학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의 현존재의 존재 의미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피력하며 존재론적 관점으로 수필론에 접근했다는 점은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을 구성하는 가치판단들이 역사적으로 가변적⁴⁴⁾이라 할지라도 문학은 인간의 구체적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성에 뿌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진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한국문화의 원류 찾기의 맥락에서 진행된 민속·향토를 주요 테마로 쓴 문학적 업적은 향후 독립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그의 수필과 수필론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작업이라는 점에서도 필요하지만 ‘김열규 수필세계’의 문학사적 의의의 길을 여는 출발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43) 수필미학 편집부, 『수필 이론과 작법의 지평 확대- 김태길의 『수필문학의 이론』』, 『수필미학』22, 2018, 126-133쪽 참조.

44) 테리 이글턴, 김명환 외 역, 『문학이론입문』, 창작사, 1986, 26쪽.

참고문헌

1. 기본 텍스트

- 김열규, 『시간의 빈터에서』, 범우사, 2007.
_____, 『산에 마음 기대고 바다에 영혼 맡기면』, 좋은수필사, 2009.
『수필문학』, 수필문학사, 1979.

2. 참고 논저

- 강영안, 『일상의 철학』, 세창, 2018.
권대근, 『수필은 사기다』, 유월의 나무, 2015.
김광섭, 「수필문학소고」, 『문학』 1호, 시문학사, 1934.1.
김진섭, 「수필의 문학적 영역」, 『동아일보』, 1939.3.14-3.23.
김태길 편, 「평론과 수필」, 『수필문학의 이론』, 춘추사, 1991.
김현주, 『한국 근대산문의 계보학』, 소명출판사, 2004.
소광희,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강의』, 문예출판사, 2019.
수필미학 편집부, 「수필 이론과 작법의 지평 확대- 김태길의 『수필문학의 이론』」, 『수필미학』22, 2018, 126-135쪽.
신동욱, 「김열규의 수필세계-삶에의 詩的 洞察과 그 아름다움의 抒情」, 『수필문학』, 수필문학사, 1979, 41-46쪽.
신재기, 「김열규 선생을 추모하며」, 『수필과 비평』 통권146, 수필과비평사, 2013.12, 76-91쪽.
_____, 『기억과 해석의 힘』, 소소담담, 2016.
_____, 『수필의 기본 개념들』, 소소담담, 2018.
_____, 「김윤식의 수필론 연구」, 『국학연구론총』 제24집, 택민국학연구원, 2019.12, 315-335쪽.
안성수, 『수필오디세이』, 수필과비평사, 2015.

- 안수민, 『1960년대 에세이즘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2015.
- 염기용, 『인물기행: 귀향교수 김열규의 가을』, 『한국논단』38호, (주)한국논단, 1992, 149-166쪽.
- 이부영, 『김열규 수필론-創造的 背理와 永遠한 아니마』, 『수필문학』, 수필문학사, 1979, 47-52쪽.
- 이태준, 『문장강화』, 창작과 비평사, 1988.
- 조형국, 『하이데거의 현사실성의 해석학- 삶과 얽려 그리고 본래성 개념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 최승범, 『수필문학』, 형설출판사, 1973.
- 최시한, 『수필로 배우는 읽기』, 문학과 지성사, 2001.
- 홍용희, 『아름다운 결핍의 신화』, 천년의시작, 2004.
- 천정환, <70년대 수필 봄...범우사 '에세이문고' 누구나 한두 권>, 『한겨레신문』, 2015.09.03.
-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1-삶의 의지』, 나남출판사, 1990.
- 카렐 코시크, 박정호 역, 『구체성의 변증법』, 거름, 1985.
- 테리 이글턴, 김명환 외 역, 『문학이론입문』, 창작사, 1986.

<Abstract>

A Study on the Essay Theory of Kim Yeolgyu

Lee, Jeong-In*

Yeolgyu Kim, a scholar of Korean literature · South Korean scholar, is also an acknowledged essayist who marked a new era in the fields of essays in South Korea. Back at the time, essays were isolated because of prejudiced awareness of genres but Kim included the essays in the realm of literature and engaged in active work activities and expressed the essay theories. This study explored Yeolgyu Kim's essay theory by classifying it into three topics like the subject matter of essay, the essay language, and the aim of the essay.

Essays are known as the literature of subject matter. The subject matter that forms based on the personal life experiences of the writer are present in the detailed world of life and in daily life, which is an aspect of existence. Kim emphasized that the subject matter of the essay is actually not in the raw, as it involves interrogating further values and meaning and must go through literary acculturation like the writer's interpretation and ascription. With this, it is reminded that it is the essayist's share to recognize the dailiness carried by the subject matter of the essay while sublimating it from a literary point of view.

To embody the subject matter of the essay from an aesthetic viewpoint and implement a topic, it must pass through a passage,

* Andong National University.

which is language. Essay language is a product of literature where the writer's daily experiences are restructured with personal language to signify the life and the world. The essay language pursued by Kim is a language that incubates within through the internalization of experiences rather than the listing of superficial thoughts or conventional everyday language. It only stands for the 'language of experiences' that develops from the writer's personal senses. Therefore, essay language signifies experiences to Kim.

Ultimately, the theory about subject matter and language in essay as proposed by Yeolgyu Kim can be understood as a part of the work required to execute the proper functions of essay, a form of self-confessional writing, with greater authenticity. For this, Kim added the meaning of 'performance (修行)', which is to constantly practice self-contemplation and self-exploration, onto the Chinese character '隨' of the term essays (隨筆). In the end, the aim of his essays is to incubate daily subject matter into the writer's experiential language and progress into the centripetal (求心) stage.

Yeolgyu Kim's essay theory is based upon the premise of dailiness. Under the literature of everyday life and life literature, dailiness was considered as an inherent limit that disturbs the literary values of essays. Kim sets forth that the answer shouldn't be searched from refusing the dilemma of essay literature as the process of embracing the dilemma and overcoming it is the way to reform essay literature. This is considered as the special value in the essay theory by Yeolgyu Kim.

Key Words: Yeolgyu Kim, essay(theory), subject matter of essay,

essay language, dailiness, confessional writing

- 논문접수 : 2021년 7월 31일
- 심사완료 : 2021년 8월 14일
- 게재 확정 : 2021년 8월 17일

